삼정 KPMG

2024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거시경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자동차 | 철강 | 조선 | 해운 | 정유·화학 | 에너지·유틸리티 | 제약·바이오 | 건설 | 항공 | 게임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유통 | 식품·외식 | 패션 | 화장품 | 은행 | 증권 | 카드 | 생명보험 | 손해보험



December 2023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T 02-2112-6744
E hyojunglee@kr.kpmg.com

박도휘
수석연구원
T 02-2112-0904
E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T 02-2112-3973
E sookyungkim@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T 02-2112-7769
E yeonkyung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I
2024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II
2024년
경제 전망

III
2024년
산업별 전망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

2024년 산업 기상도 Snapshot



2024년 산업 전망 기상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고금리·부채부담에 더해 러-우[1] 침공 장기화 및 이·하[2]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며 2024년의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제한적. 수출 영향도가 높은 국내 주요 산업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나, 신규 제품·서비스로 시장 외연 확대, 기저효과 기반 업황 개선 등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수요 개선 및 수익성 제고 기대

산업	2024년 전망
반도체	일부 긍정적
디스플레이	일부 부정적
휴대폰	일부 긍정적
자동차	일부 부정적
철강	일부 부정적
조선	일부 긍정적
해운	부정적
정유·화학	일부 긍정적

산업	2024년 전망
에너지·유틸리티	일부 긍정적
제약·바이오	일부 긍정적
건설	부정적
항공	일부 긍정적
게임	일부 부정적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일부 긍정적
유통	일부 부정적
식품·외식	일부 긍정적

산업	2024년 전망
패션	일부 부정적
화장품	일부 긍정적
은행	일부 부정적
증권	부정적
카드	부정적
생명보험	일부 부정적
손해보험	일부 긍정적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Note 2):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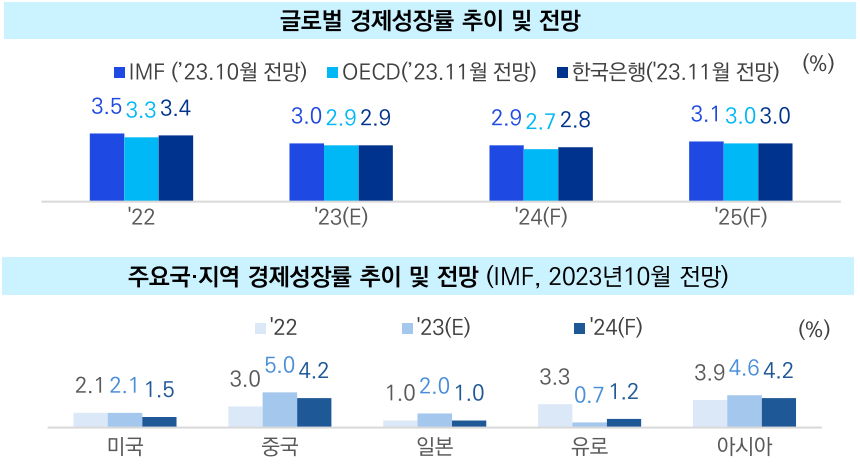
II

2024년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완만한 회복세 가운데 비우호적 여건으로 회복 지연 전망

글로벌 경제는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완만하게 회복 중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군사분쟁 발발, 중국 경제 리스크 지속,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 회복에 비우호적인 상황. 이에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역사적 평균치(3.4%)대비 저조한 2.7~2.9%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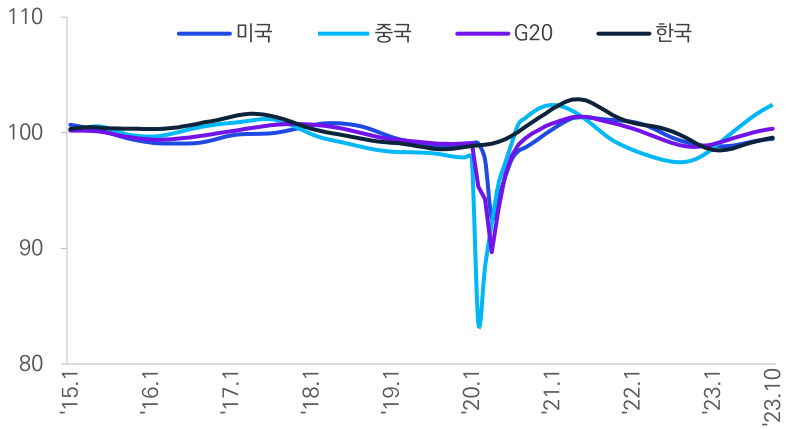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3년 2.9~3.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긴축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으로 역사적 평균치(3.4%, IMF, 1980~2022년 기준)를 하회하는 '24년 2.7~2.9%로 나타낼 전망
- 유로지역을 제외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대비 둔화

Source: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IMF(2023.11), 'Regional Economic Outlook-Asia and Pacific', 'OECD(2023.11),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글로벌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 최근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나, 미국과 한국은 100을 하회하는 등 경기 개선의 가능성은 제약
  - '23년 10월 기준 중국은 102.4, G20은 100.4로 100을 상회하는 반면, 미국은 99.5, 한국은 99.6으로 100을 하회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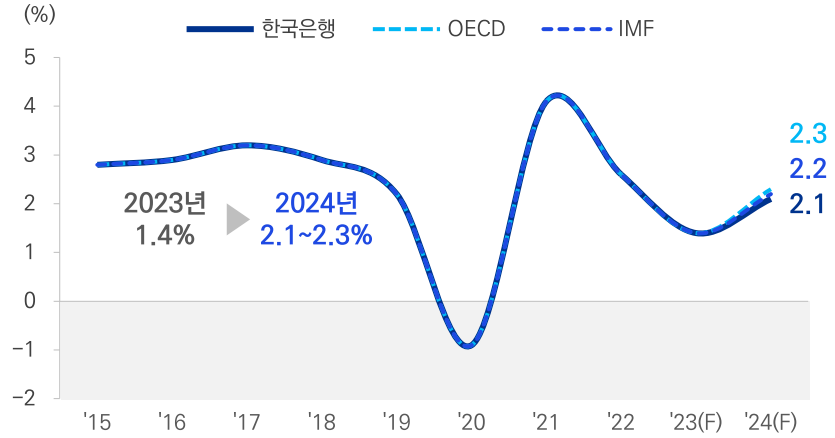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국내 경제 완만한 회복세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부진 가능

IT업황 회복 가능성과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 글로벌 교역 회복세 등으로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1.4%)대비 개선된 2.1~2.3%로 전망. 그러나 고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국내 부동산·건설경기 위축, 한계차주 증가, 기업 채산성 약화, 미국과 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제약 가능성 등 하방 요인 상존

한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주요 지표 전망

한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한국 주요 지표 추이 및 전망[1)]

(전년동기대비, %)

지표	2022	2023			2024(F)		
	연간	H1	H2(E)	연간(E)	H1	H2	연간
GDP(연율)	2.6	0.9	1.8	1.4	2.2	2.0	2.1
민간소비	4.1	3.1	0.7	1.9	1.5	2.2	1.9
설비투자	−0.9	5.3	−5.8	−0.4	0.8	7.5	4.1
건설투자	−2.8	1.8	3.6	2.7	0.5	−3.7	−1.8
상품수출	3.6	−0.9	5.4	2.3	4.1	2.7	3.3
실업률	2.9	3.0	2.4	2.7	3.1	2.7	2.9
소비자물가	5.1	4.0	3.3	3.6	3.0	2.3	2.6

- 국내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고금리 기조 지속 및 IT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23년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3년 하반기 이후 교역 및 반도체 업황이 소폭 개선
- '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1~2.3%로 '23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①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 소비여력 감소, ②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 등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③ 주택시장 불황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④ 글로벌 교역 회복세 등으로 인한 수출 제한적 확대 예상
- 다만 중국 경제 침체 가능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과 부동산PF 부실화, 한계차주 증가, 기업의 채산성 약화 등 하방 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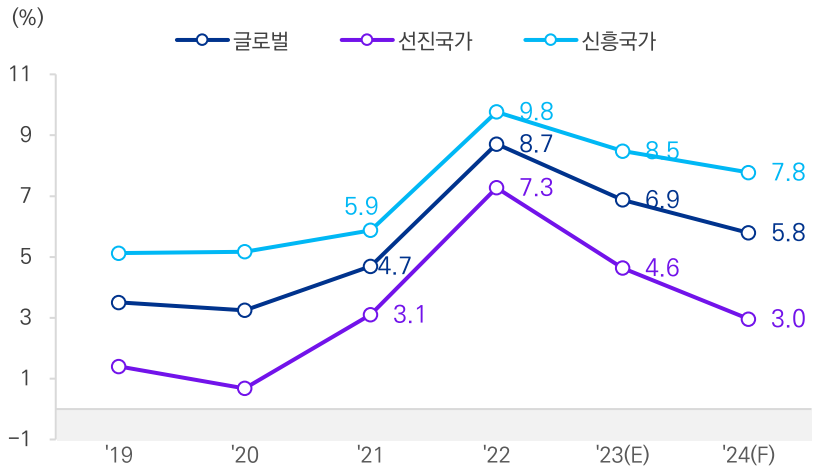
Source: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23.11),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Note 1):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있으나 물가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상회할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7월부터 소폭 재상승. 지정학적 충돌 지속, 원유 감산 가능성 등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며 중앙은행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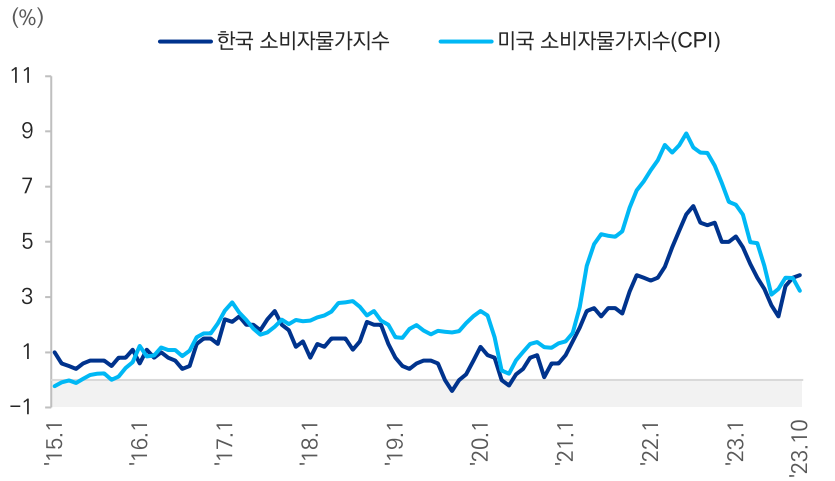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표 추이 및 전망



- '23년 2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2년 2분기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했으나,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공급 충격 가능성 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
  - 전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 정책에 의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라 글로벌 유가는 '22년 6월 최고치를 경신 후 '23년 대체로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
  - 글로벌 식품 가격은 '23년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상쇄하며 하락세 유지
  -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3.11월 4.5%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Source: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Note: Average Consumer Prices 기준,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한·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금리인상의 여파로 미국과 한국의 CPI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3년 7월을 전후하여 다시 소폭 오름세로 전환
  - 국제 유가 및 관련 상품군 가격 상승,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오름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 다만 '23년 10월 미국 CPI 상승폭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지켜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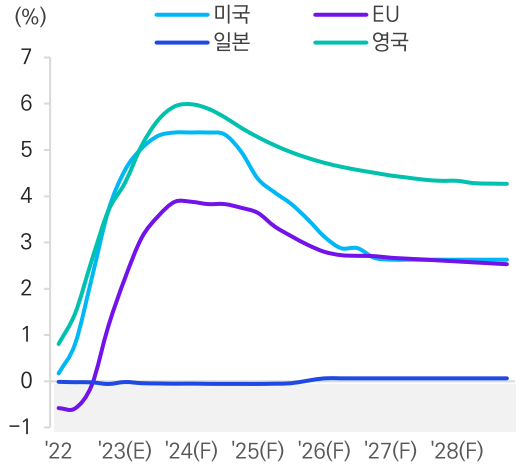
Source: FRED, 한국은행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긴축적 통화 기조는 지속되나, 2024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증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2025년까지 지속되며 상당 기간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나, 최근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2024년 상반기 미 연준의 1~2차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음. 한국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연속 7차례 동결되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는 점진적 하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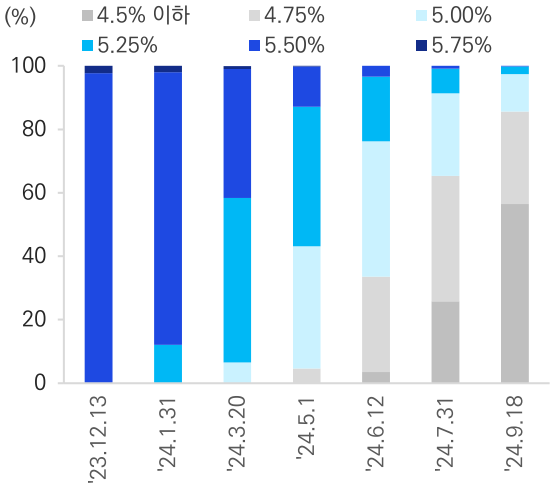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22년을 전후로 최근 18개월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으나, '23년 들어 긴축 속도는 둔화됨
- IMF는 타이트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긴축기조가 시장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Source: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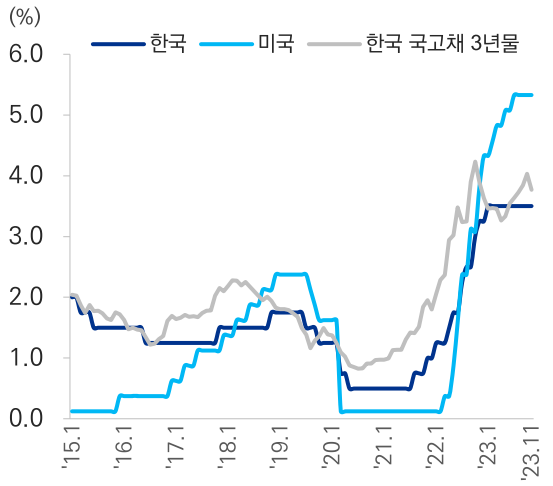
시장참가자의 미국 정책금리 전망[1)]



- '24년 1월 31일 FOMC 회의에서 현 수준 정책금리(상단 5.50%) 동결을 예상하는 시장 참가자 비중은 85.9%에 달함
- 반면 '24년 3월 20일 정책금리 상단 5.50%를 기대하는 시장참가자는 40.6%, 5.25%를 예상하는 시장참가자 비중은 51.9%임

Source: CME FedWatch Tool
Note 1): 2023년 12월 8일, 정책금리 상단 기준

미국과 한국간 정책금리 추이 비교



- 미국 정책금리는 '23년 11월 기준 5.25~5.50%에 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3년 1월부터 연속 7차례 3.5%로 동결되며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상존
- '22년 하반기 이후 시장 금리 변동성이 높았으나,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장금리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임

Source: FRED,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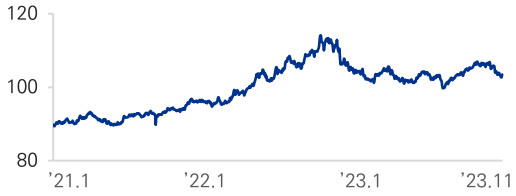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달러화는 점진적 약세, 원화는 수출 회복 등으로 점진적 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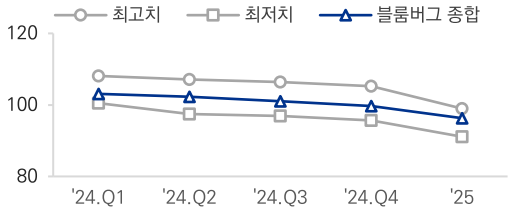
2024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종결과 소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화는 제한적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주요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가 예상. 반도체 경기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원화는 강세가 예상되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수준과 속도는 제한적일 전망

미국 달러 인덱스 추이 및 전망[1)]

미국 달러 인덱스 추이



미국 달러 인덱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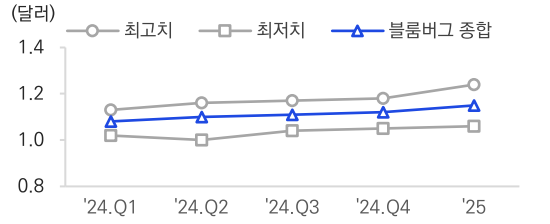


- '21~'22년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기업 실적, 고금리,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달러는 강세를 지속
- '24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종결,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달러화의 점진적 약세 흐름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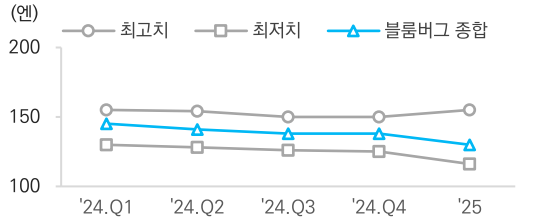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Note 1): 2023년 12월 8일 기준, 블룸버그 종합은 주요 IB 전망치 중간값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환율 추이 및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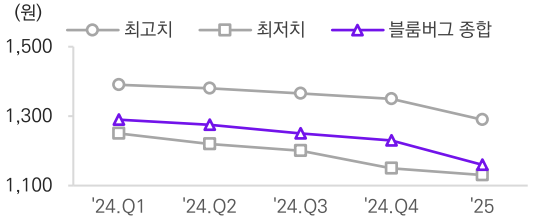
유로/달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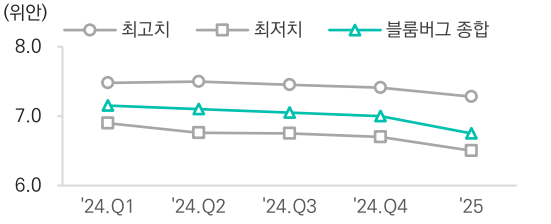
달러/엔 추이 및 전망



달러/원 추이 및 전망



달러/위안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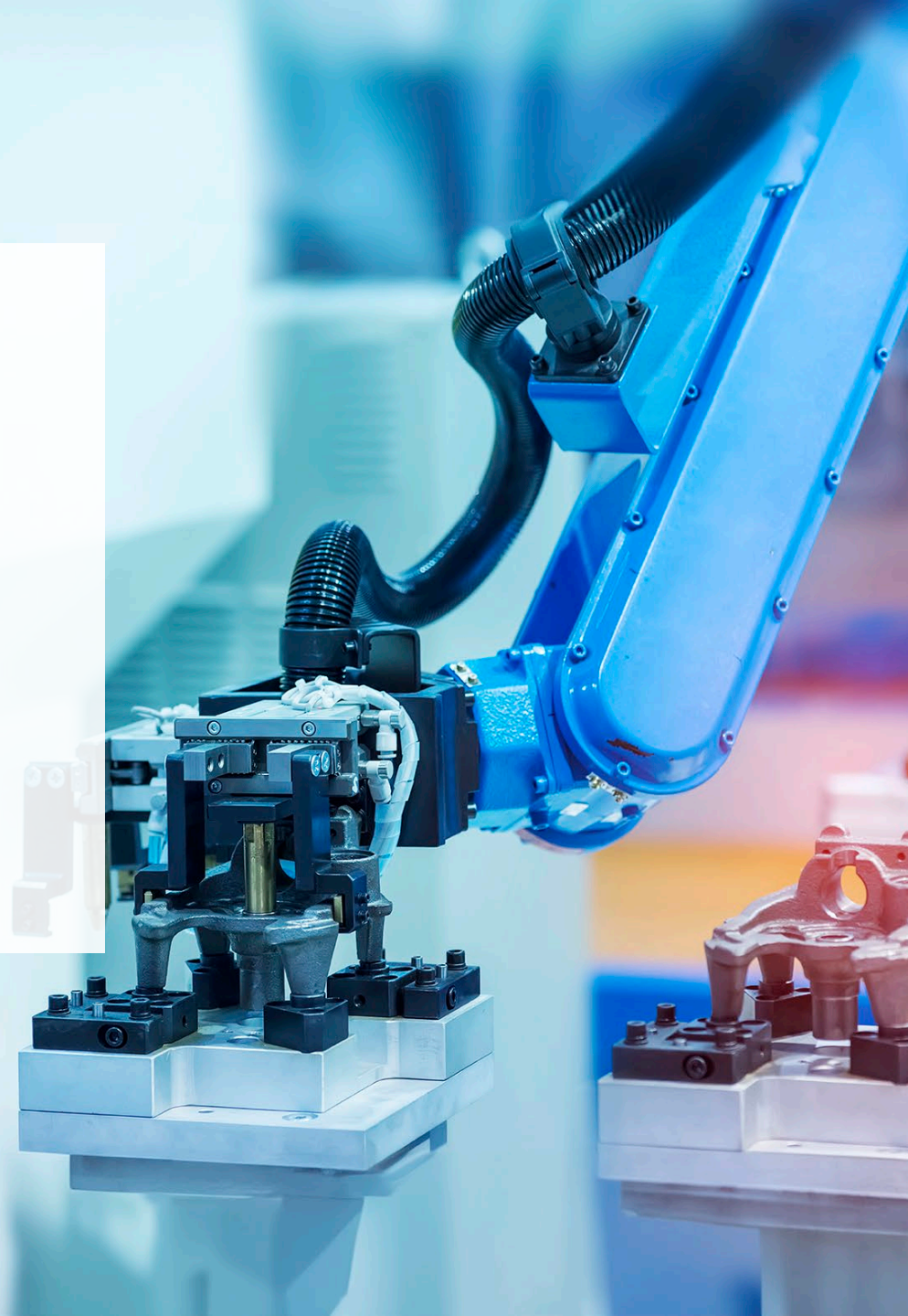
- 유로화: 성장률·물가지수 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24년 4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유로화 약세가 예상
- 엔화: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원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 기대, 수출 개선 등에 따라 원화 강세가 예상되나,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
- 위안화: 부동산 침체, 저성장 국면으로의 전환 등으로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나, 정부의 환율 방어, 수출 반등 기대 등 상존

Source: Bloomberg
Note 1): 2023년 12월 8일 기준, 블룸버그 종합은 주요 IB 전망치 중간값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II

2024년 산업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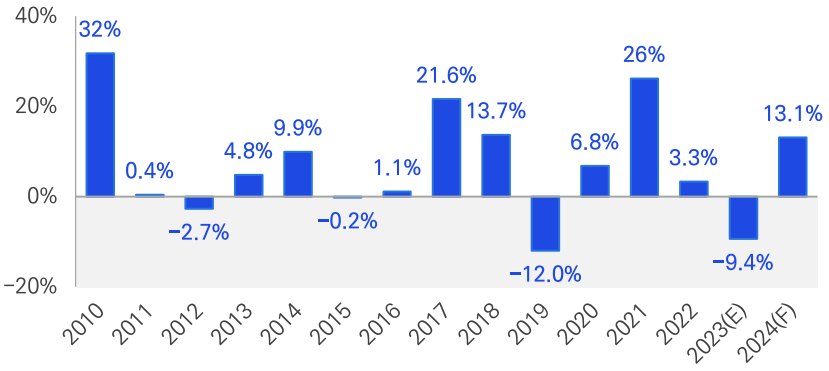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할 것, AI 반도체 시장 확대 주목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3.1% 성장한 5,884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3년 감소폭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4년 44.8%의 높은 신장폭을 보일 것으로 보여 전망이 긍정적임. 2024년 반도체 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주목해야 함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년대비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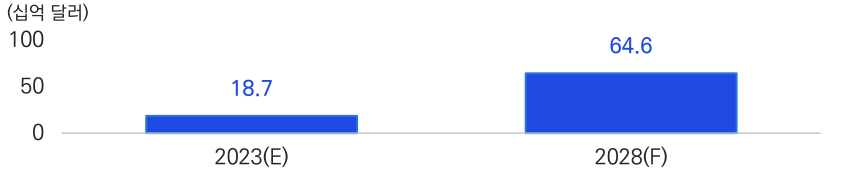


-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에 따르면, '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성장 전환하여 전년대비 13.1% 상승하며 반등할 것으로 보임
- '23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특히 '24년에 전년대비 매출이 44.8% 증가하며 '22년 시장 규모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Source: WS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2024년 주목해야 할 분야 – AI 반도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8년까지 646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CAGR 28.1%의 높은 성장세가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은 CAGR 32.4%의 고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Source: MarketsandMarket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기업명	국내 주요 기업 동향
삼성전자	•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에 PIM(Processing In Memory) 기술을 적용한 AI용 메모리 반도체 제품 2종을 '23년 8월 공개하며 AI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였음 • 글로벌 AI 반도체 스타트업 Groq, Tenstorrent와의 공급 계약 체결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는 HBM3(4세대)를 '21년 세계 최초 개발 및 '22년 양산 성공하였으며, '24년 HBM3E(5세대)·'26년 HBM4(6세대) 개발 로드맵 발표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HBM3, HBM3E(예정) 공급 계약 체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디스플레이 》 시장 정체 속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략 가속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IT 기기 수요 증가로 LCD·OLED 시장이 모두 성장했지만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 정체기를 맞으며 2023년 전년대비 -3.7% 시장 규모(금액 기준) 축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에는 역성장 국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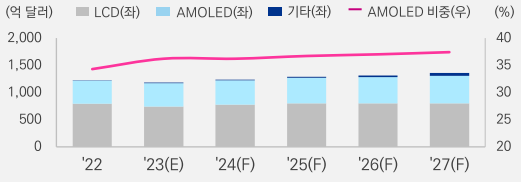
2024년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률 플러스 전환

'24년 세계 시장 1,237억 달러, YoY 4.7% 성장

- 엔데믹을 바라보던 '22년부터 디스플레이산업은 다운사이클로 진입하여 '23년 전년대비 시장 규모(금액 기준)가 축소될 전망.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2년 1,226억 달러에서 '23년 1,181억 달러로 감소 예측
- '24년에는 전년대비 4.7% 성장한 1,237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이며, LCD와 OLED 모두 시장 성장 예상
- LCD: '22년 796억 달러, '23년 743억 달러로 세계 시장 규모 축소에 이어 '24년 775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전망
- AMOLED: 국내 디스플레이 세트 업체의 OLED 라인업 확대로 성장을 지속하며 '22년 421억 달러, '23년 428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24년 447억 달러 시장 규모 예상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금액 기준)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기타에 마이크로LED 포함,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글로벌 디스플레이 M/S 1위 중국, 2위 한국

'22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중국 42.5%, 한국 36.9%

-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로, '21년부터 중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한국은 2위로 내려옴
- 과거 LCD 분야에 주력했던 중국은 최근 OLED에 이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원재료, 부품, 설비 등 디스플레이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음
- '05년까지 중국의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는 주로 LCD 후공정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06년부터 BOE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의 LCD 전공정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 대비 관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

국적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

국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국	21.0	25.0	30.9	36.7	41.3	42.5
한국	44.4	42.6	40.4	36.8	33.3	36.9
대만	22.9	24.5	21.9	22.5	23.1	18.2
일본	10.8	6.7	5.9	3.6	1.9	2.1
기타	0.9	1.2	1.0	0.5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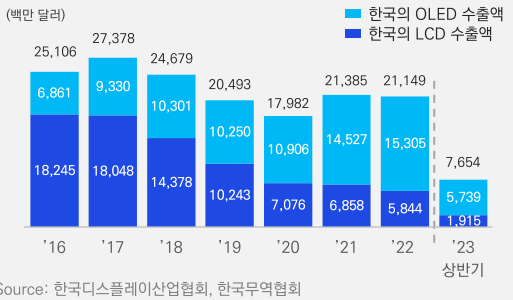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Note: SHARP는 '17년 매출부터 대만 국적으로 포함

한국의 디스플레이 수출, 글로벌 경쟁 심화

OLED 수출 주력, '23년 상반기 OLED 점유율 75%

-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 영향 등에 따라 '18년부터 '20년까지 역성장을 보임. 이후 '21년 전년대비 19%의 수출 증가율을 보인 뒤 '22년 -1%의 수출 역성장을 나타내는 등 수출 정체 국면에 있음
- 한국 디스플레이의 수출은 OLED가 주도하며 '19년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중 OLED가 50%를 차지한 후 '20년 60.6%, '21년 67.9%, '22년 72.4%, '23년 상반기 75%에 달함.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제품 중심으로의 전략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한국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Sourc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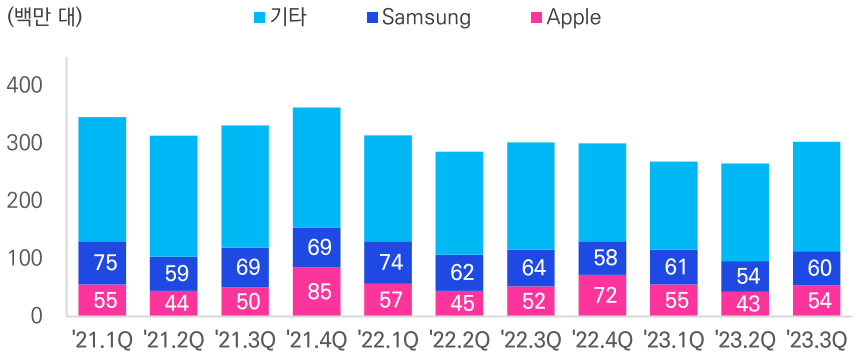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휴대폰 》스마트폰 수요 회복세 전망, AI 및 폴더블 시장 주목됨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대비 3.8% 증가(출하량 기준)할 것으로 전망됨. 2024년에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AI 스마트폰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산 중저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

분기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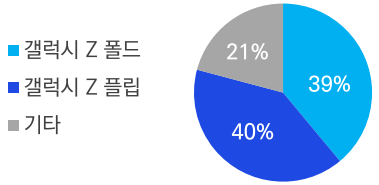


- '23년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5억 3,40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음
- '23년 연간 전망으로는 전년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스마트폰 교체주기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23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0.3% 소폭 증가하였으며, '23년 4분기 기준으로도 전년동기대비 신장하며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Source: Statista, IDC,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024 Keyword – AI 스마트폰의 등장과 폴더블폰 경쟁의 심화

2023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의 제품별 비중



Source: Statista, Real Research,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Keyword	내용
AI 스마트폰의 등장	▪ '24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24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 시리즈, 아이폰 16 시리즈 등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스마트폰 내 생성형 AI 기술이 탑재된 AP를 도입하여 통화, 검색 등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내부에서 자체 분석하여 통화내용 정리, 실시간 통역 등의 AI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전망
폴더블 스마트폰 경쟁의 확대	▪ '24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확대될 전망 ▪ '23년 기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라인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0%에 육박 ▪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중저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폴더블 라인업이 확대됨에 따라 폴더블 스마트폰 중심의 경쟁 강화 현상이 전망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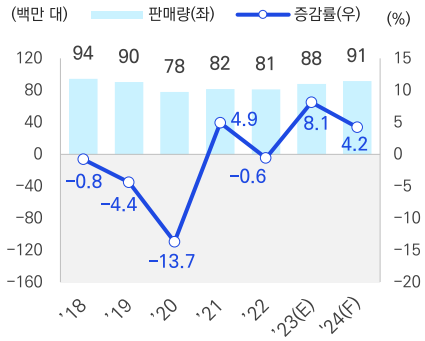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 》 전년대비 수요 및 공급 성장률 둔화되며 성장에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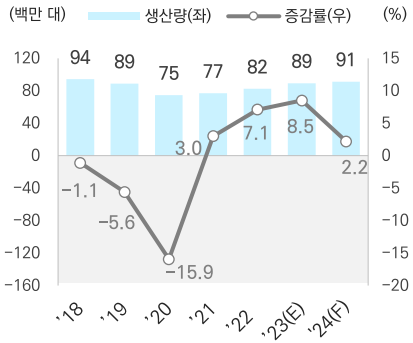
글로벌 자동차 판매 및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4.2%, 2.2% 증가할 전망이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공급 전망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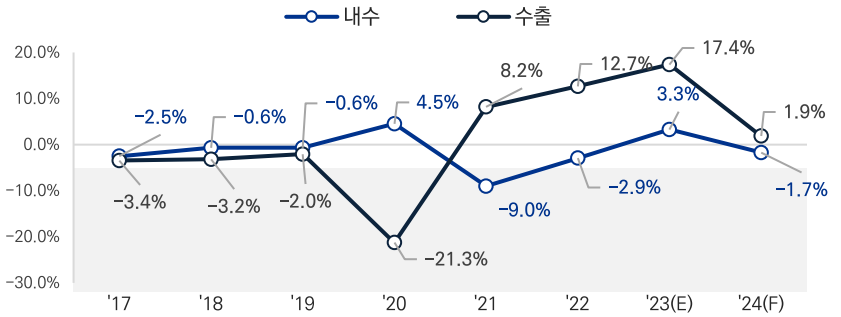


- **'24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4.2% 증가한 9,135만 대 전망**
  - 기존 차량 대기수요의 상당 부분 해소, '23년 자동차 판매 확대를 견인한 미국·유럽·중국 성장세 약화,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았던 전기차의 가격인하 등이 '24년 자동차 수요 성장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전망
- **'24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2% 증가한 9,126만 대 전망**
  - '24년 글로벌 OEM 기업의 생산 순증량은 BYD(47만 대), 지리자동차(43만 대), 스텔란티스(42만 대), 테슬라(31만 대), GM(29만 대) 순으로 예상

Source: LMC(2022년 11월 조회 기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2024년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수출 전망

국내 자동차 내수 및 수출 전년대비 변화율 추이



- **'24년은 자동차 내수가 전년대비 1.7% 감소 전망**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해소되지 않았던 대기 수요 상당 부분 해소, 고금리 및 가계소득 감소 등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수요에 부정적 영향
  - 국내 전기차 판매율은 증가할 전망이나 내연기관차 판매율이 감소하는 것만큼 상쇄하기가 어려울 전망
- **'24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감소하며 제한적 성장 예상**
  -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내수 성장 한계로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이나 정치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 → 이는 국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호재
  -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중국산 전기차 가격 경쟁력 등은 국내 기업 수출에 위협요인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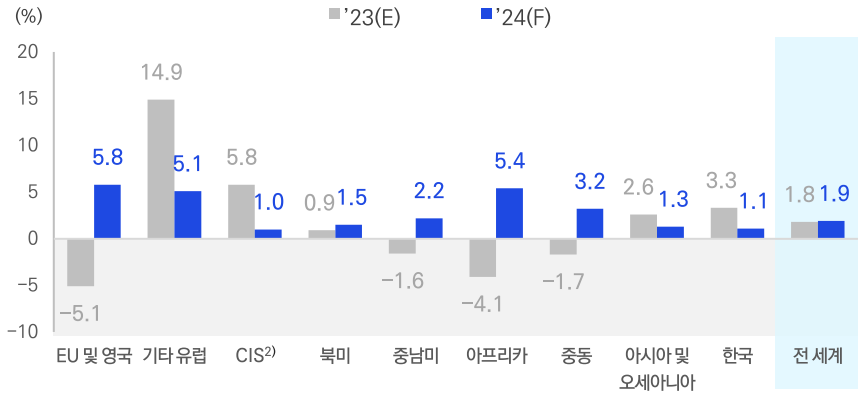
Source: KAMA,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이며, 2023년 추정치(내수, 수출량)는 KAMA의 2023년 12월 전망치 활용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철강 》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불가피한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라 2024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칠 것. 한편, 국내에서는 건축수주 및 착공면적의 감소로 특히 봉형강의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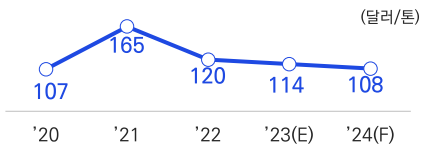
- **'24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18억 4,910만 톤,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
  -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라 철강 수요의 부진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 중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세, 아시아 신흥국의 회복으로 전년대비는 증가
- **'24년 국내 철강 수요는 5,360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방산업(특히 건설, 가전, 중장비, 기계 등)의 부진으로 저성장 불가피

Source: 세계철강협회('23.10),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Note 2):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형성된 독립국가연합을 지칭

원재료 가격 전망 및 2024년 국내 철강산업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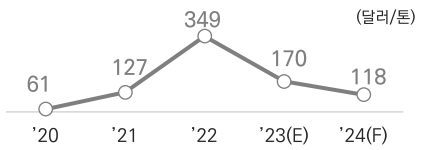
철광석은 향후 인도 생산량이 변수, 원료탄(유연탄)은 견조한 가격 흐름 보일 것

철광석 가격 전망[1)]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원료탄(유연탄) 가격 전망[1)]



Source: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01 철강재 가격,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
- 철광석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공급 증가로 '25년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
- 원료탄(유연탄)은 기존 광산의 생산능력 확대 또는 신규 광산의 개시가 철광석보다는 적어 큰 폭의 공급증가 가능성은 낮아 '24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흐름이 견조할 전망

02 건축수주 및 착공면적 감소로 봉형강 수요 부진 전망
- '23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봉형강 업계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이 유지되어 옴
- 그러나 '23년 들어 뚜렷하게 감소한 건축수주와 착공면적이 봉형강 수요에 하방 압력 가할 것

03 EU CBAM[2)]에 대비한 국내 철강사들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전략이 필요
- CBAM 우선적용 대상 6개 제품의 '22년 EU 수입액 중 철강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
- CBAM 전환기('23.10~'25.12)를 지나 전면 시행이 예고된 '26년부터는 국내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E)는 추정치이며 (F)는 전망치, Note 2):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에 물품을 수출 시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조선·해운 》조선 안정적 실적 유지, 해운 경기 둔화 영향 불가피

2024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호황기 대량의 선박 발주로 인해 전년대비 24.7% 감소할 전망. 하지만 국내 조선사의 높은 수주잔량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의 증가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전망. 2024년 해운산업은 세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글로벌 긴축,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전반적인 물동량 수요가 감소할 전망

2024년 조선산업 전망

2024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 및 한국 수주량 전망

구분	'22년	'23년(E)	'24년(F)
글로벌 발주량 (백만 CGT)	50.2 (↓10.1%)	38.5 (↓23.3%)	29.0 (↓24.7%)
한국 수주량 (백만 CGT)	16.8 (↓7.6%)	11.5 (↓31.5%)	9.5 (↓17.4%)
글로벌 발주액 (억 달러)	1,378 (↑15.1%)	1,070 (↓22.4%)	810 (↓24.3%)
한국 수주액 (억 달러)	463 (↑4.6%)	335 (↓27.6%)	280 (↓16.4%)

Source: Clarkson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23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총 3,850만 CGT로 전년대비 2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 신조선 발주량 또한 2,900만 CGT로 전년대비 24.7% 감소할 전망
- '24년 국내 수주량은 약 950만 CGT로, 전년대비 17.4% 감소할 전망. 하지만 국내 조선사는 이미 약 3년 치의 수주잔량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전망
  - '23년 11월 전 세계 수주잔량은 1억 2,542만 CGT, 그 중 한국은 3,954만 CGT(32%)를 보유
-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 세계 1위 기록 중. 신규 선종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술우위를 확보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 '23년 상반기 전 세계 고부가 선박 발주량의 61%, 친환경 선박의 50%를 점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는 87%를 차지

2024년 해운산업 전망

컨테이너선

세계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긴축 기조로 '24년에도 수요 증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21~'23년 집중 발주된 다량의 컨테이너선이 '24년에 대량 인도될 전망이어서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

벌크선

'24년 벌크선 시황은 세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 특히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 추세로 드라이벌크 화물의 수요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24년 벌크선 선복량 증가율은 2% 수준에 머물 전망

탱커

OPEC+의 원유 추가 감산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가격 불안이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맞물리면서 석유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탱커선의 경우 대부분 LSFO(저유황유) 연료의 부정기선 임에 따라 공급 과잉에 대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LNG선

LNG선의 선박 발주는 '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4~'26년까지 3년간 연간 80척 이상의 LNG선이 인도될 예정.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러시아 PNG(배관천연가스)를 LNG로 대체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급증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정유·화학 》정제설비 제한적 증설, 공급 부담 감소로 업황 회복 기대

선진국 내 주요 정제설비 일부 폐쇄 및 신규 증설 계획이 제한적임에 따라 정유산업은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할 전망. 에틸렌 등 주요 화학제품 증설 규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급 감축으로 업황 회복 기대

글로벌 주요 정제설비 전망

- 2024년 글로벌 정제설비 증설은 제한적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의 170만b/d 전망. 정제설비에서 파생되는 윤활기유 및 BTX, PX 증설도 제한적
  - 바레인, 나이지리아 등의 신규 증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주요 정제설비를 폐쇄할 계획으로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할 전망
  - 아시아/중동 정제설비 신규 증설은 약 20~30만b/d로 예상되면서 PX 신증설도 2023년 630만 톤에서 2024년 50만 톤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국내 정유 업체는 석유화학, 배터리 등 비정유부문의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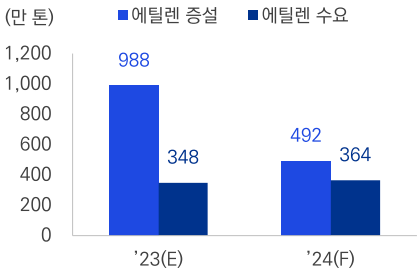
구분	국가	정유사	정제능력(1,000b/d)
증설	바레인	Bahrain Petroleum	225
	나이지리아	Dangote	650
	중국	CNOOC	120
		Shandong Independent	100
폐쇄	미국	Houston Refining	-264
		Phillips 66	-125
	이탈리아	Eni	-120
	바레인	Bahrain Petroleum	-113
	중국	Independent	-100

Source: IE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정제능력 0.1백만b/d 이상의 설비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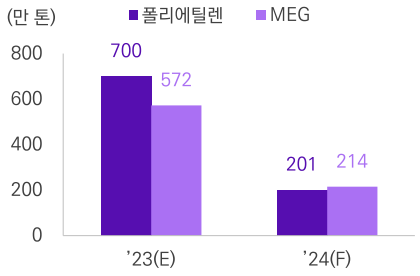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화학제품 증설 전망

- 2023년까지 글로벌 화학제품 수급 밸런스 악화 이후, 2024년부터 에틸렌(Ethyle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MEG[1] 등의 증설 규모 하락으로 공급 부담 감소 및 수요 회복과 함께 수급 밸런스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제한적인 가능성
  - 에틸렌 증설 규모는 2024년 492만 톤으로 하락, 가동률 약 80% 예상
  - 폴리에틸렌의 증설 규모도 전년대비 71.3% 급감한 201만 톤이 예상되고, MEG는 2017년 이후 최저 규모인 214만 톤이 예상되면서 공급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
- 국내 화학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시장의 경우, 화학제품 재고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재고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인 점, 중국의 증설 사이클이 일단락되는 점 등을 고려 시 2023년 대비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에틸렌 증설 및 수요 전망[2]



폴리에틸렌 및 MEG 증설 전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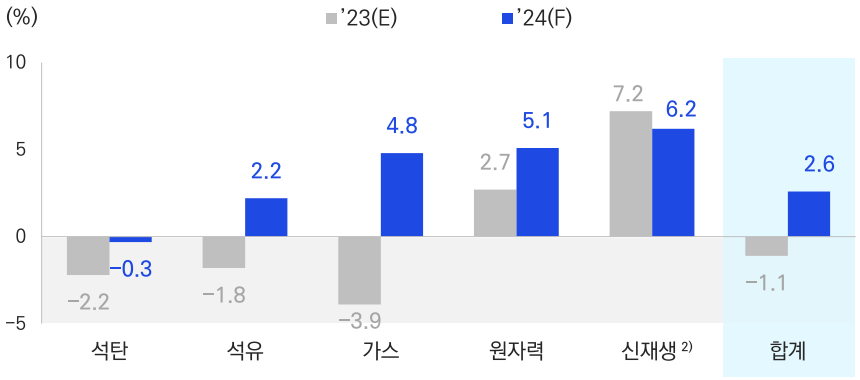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Mono Ethylene Glycol
Note 2):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에너지·유틸리티 》 회복세로 돌아선 에너지 수요

2024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2.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 가스의 발전 부문 수요 증가와 신재생 및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는 한편, 석탄 수요는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

국내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1)]



- **'24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3.09억 TOE[3)]로 전년대비 2.6% 증가 전망**
  - 경제 성장 둔화로 감소했던 국내 에너지 수요는 '24년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보일 것
- **신재생과 원자력, 가스가 총에너지 수요 증가 주도, 석탄 수요는 소폭 하락 전망**
  - 가스의 발전 부문 수요 증가, 신재생 및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
  - 석탄은 송전 선로 부족과 발전 감축정책으로 전년대비 수요 감소 전망

Sou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23.11),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년대비 증감률,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Note 2): 신재생에는 기타에너지도 포함
Note 3): TOE(Ton of Oil Equivalent)는 모든 에너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에너지단위인 석유환산톤

2024년 에너지원별 주요 이슈

구분	2024년 전망
석탄	• EU국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압박이 증가할 전망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 비중을 대폭 감축한 19.7%로 설정한 만큼 국내 석탄 수요 둔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
석유	• '24년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81.0$/bbl 수준으로 전망(World Bank) • 국내 석유 수요는 건물 부문에서 감소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정체가 예상되나, 석유화학 설비 증설 등의 영향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증가할 전망
가스	•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의 즉각적인 영향이 완화되면서 '24년 아시아 LNG 가격은 13.0$/mmbtu 수준으로 예상(World Bank) • 국내 도시가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직도입 부문과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전망
원자력	•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24년 국내 원자력 수요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90TWh 기록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은 32.4%로 발전량 기준으로 전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증가세 지속 전망
신재생	• 풍력은 금리 인상 완화에 따라 '23년 지연되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될 것 • 태양광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1)] 제도 종료, 예산 삭감 등 정부의 태양광 지원 축소 기조로 신규 설치가 정체될 전망
전력	• '24년 국내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546.9TWh로 예측 (에너지경제연구원)

Source: World Bank, 에너지경제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소형 태양광(100kW 미만)의 경우 별도의 입찰 경쟁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태양광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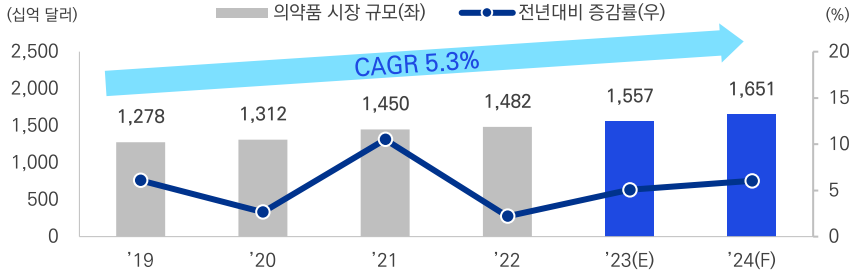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 단기적 성장은 건전, 바이오시밀러 해외 진출 활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로 회귀할 전망인 가운데,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잇따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의약품 독점권 및 물질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의약품 시장 전망

-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률의 변동폭이 컸지만, '24년부터 기존의 성장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바이오시밀러와 항암제 분야의 성장세가 의약품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제약·바이오 산업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가격 압박, 특허 절벽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성장은 건전
  - 미국 IRA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인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M&A 전략 혹은 약가 인하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등의 포트폴리오 변화 예상
  - 대규모 M&A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23년에 이어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비하고자 글로벌 빅파마의 인수합병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의약품 시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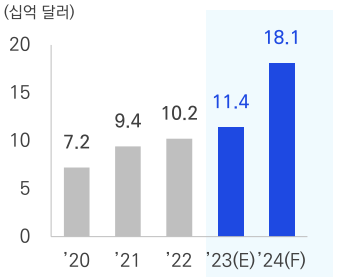


Source: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지출은 제외된 추정치

바이오시밀러 시장 및 기업 동향

- '23년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Humira), 스텔라라(Stelara) 등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 영향으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이 전망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유럽 등 국가별 의약품 독점권 및 물질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맞춤형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24년 아일리아(Eylea)의 미국 독점권('24.5) 만료 등이 예상되면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 전망
  - 국내 삼성바이오에피스(SB15), 셀트리온(CT-P42), 삼천당제약(SCD411) 등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완료 및 일부 미국·유럽에서 품목허가 신청까지 완료
  - 인도 바이오콘, 미국 암젠, 아이슬란드 알보텍, 스위스 산도즈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도 임상 3상을 완료하며 퍼스트 무버 경쟁 예상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특허 만료시기		오리지널 제품명	기업명	적응증
미국	유럽			
2023	2019	휴미라	애브비	자가면역 질환
2023	2024	스텔라라	존슨앤존슨	자가면역 질환
2024	2025	아일리아	리제네론/ 바이엘	황반변성
2024	2024	티사브리	바이오젠/ 엘란	자가면역 질환

Source: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건설 》국내 건설 2년 연속 수주 감소 전망, 해외건설 소폭 상승 기대

2022년 229.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대비 17.3% 감소한 190.1조 원 이후, 2024년에도 1.5% 줄어 2년 연속 수주가 감소할 전망. 2024년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부동산PF 문제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 수주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 건설 수주액 현황 및 전망

(조 원)

구분	'22년	'23년(E)	'24년(F)	증감률 (YoY)
총합	229.8	190.1	187.3	-1.5%
공공	56.9	55.8	58.4	4.6%
민간	172.9	134.3	128.9	-4.0%
토목	61.0	63.3	63.5	0.3%
건축	168.8	126.8	123.8	-2.4%
주거	86.0	61.0	60.5	-0.8%
비주거	82.8	65.8	63.3	-3.8%

Source: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 '24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3년 보다 1.5% 감소한 187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 감소를 보일 전망
- 공공 수주는 GTX,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SOC 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전망. 민간 수주는 자금조달 난항, 높은 공사비로 전년대비 4.0% 감소 전망
- 토목 수주는 대규모 공공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0.3% 증가 전망, 건축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2.4% 감소 전망

국내 SOC·해외건설 현황 및 전망

2024년 SOC분야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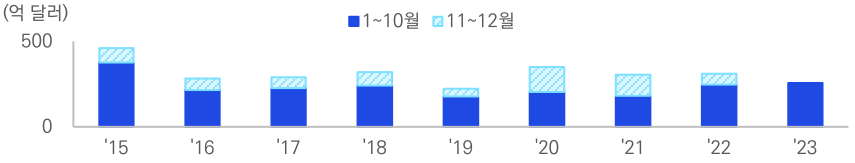
(억 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도로부문	78,408	78,705	▲ 건설(5.2→5.1조 원) ▲ 안전 등(2.6→2.7조 원)
철도부문	75,968	80,501	▲ 건설(4.5→4.3조 원) ▲ 안전 등(3.1→3.7조 원)
항만수자원부문	34,562	42,490	▲ 해운(0.4→0.4조 원) ▲ 항만(1.5→1.6조 원)
지역 및 도시부문	22,631	18,253	▲ 도시재생(0.6→0.4조 원)
물류·항공·산단 등	38,311	41,400	▲ 항공·공항(0.3→0.8조 원)
합계	249,880	261,349	전년대비 ↑ 4.6%

Source: 기획재정부

- '24년 SOC 예산 26조 1,349억 원으로 편성, 2년만에 SOC 예산 증가세 전환
-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 분야 예산 증가, 도로·철도 인프라 건설 예산 감소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추이



Source: 해외건설종합서비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3년 10월 기준 해외 수주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 고유가 기조로 산유국 발주 여력이 증가하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발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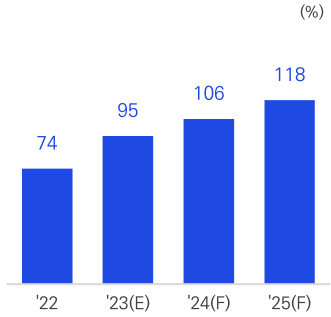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항공 》 항공여객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 항공화물 공급과잉 우려 상존

2024년 항공여객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항공여객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2023년 기준 미주와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 항공화물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객기 운항 회복으로 벨리(하부 화물칸) 공급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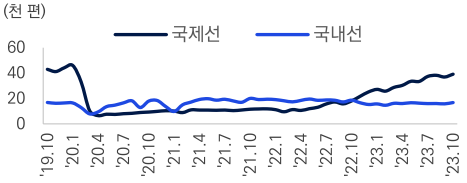
항공여객산업 현황 및 전망

글로벌 항공여객 회복률 전망



Source: IATA
Note: 2023년 3월 기준 전망,
회복 수준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함

국내 항공여객 운항 및 노선별 여객 회복 추이



여객 회복 추이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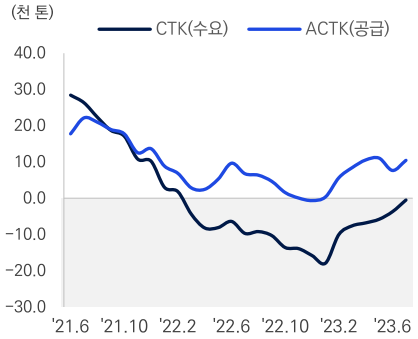
구분	일본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및 기타	합계
'19.1~10	1,665	1,539	2,978	465	568	367	7,582
'22.1~10	104	31	560	248	153	141	1,237
'23.1~10	1,547	529	2,294	468	362	307	5,507
'19년比 회복률	92.9%	34.4%	77.0%	100.6%	63.7%	83.7%	72.6%

Source: 항공정보포털시스템
Note: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지 않음

- **'24년 글로벌 항공여객 수요는 '19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24년 글로벌 항공여객의 회복률을 106%로 발표하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항공여객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국내 항공여객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23년 10월 기준 국제선 항공여객 운항 횟수는 39,176편을 기록. 이는 국내선(16,789편) 운항 횟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국제선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 추세에 들어섬
  - 노선별 여객 회복률은 '23년 1~10월 기준 미주(100.6%), 일본(92.9%)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중국 노선 이용 여객 회복률은 여전히 34.4%에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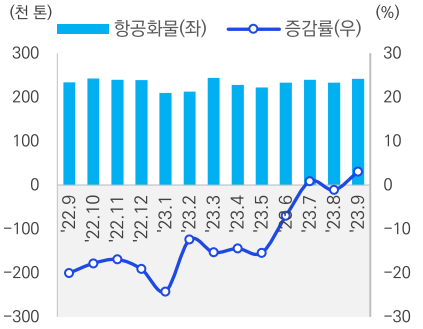
항공화물산업 현황 및 전망

글로벌 항공화물 수급 증감률



Source: IATA, 항공정보포털시스템
Note: 항공화물 수급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국내 항공화물 운송실적 추이



Source: 항공정보포털시스템
Note: 항공화물 기준(수화물 제외),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회복세 전환, 하지만 여전히 공급과잉 우려 상존**
  -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ACTK(공급) 대비 높은 CTK(수요) 감속폭을 보였지만, '23년 2월을 기점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점차 회복세 유지
  - 하지만 여객기 운항 회복으로 벨리(하부 화물칸)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급과잉 우려 상존
- **국내 항공화물시장은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점차 회복**
  - 국내 항공화물은 중국 내수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출 부진에도 전자상거래(화장품, 전자제품 등) 수요 증가 및 최근 중국發 이커머스(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물량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 전환.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게임 》 신규 플랫폼 및 기술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성장 모색

2024년 게임 산업은 둔화된 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 다변화 등으로 국내외 이용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 한편, 게임 생태계를 파고드는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과 도입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2024년 게임 시장 전망

1 플랫폼 다변화와 크로스 플레이의 확산

-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이 글로벌 시장 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모바일 게임 이용자 비중은 줄고, 상대적으로 PC 및 콘솔 게임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는 트렌드가 나타남
- 게임사는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콘솔을 포함한 멀티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출시를 늘리며 국내외 이용자 확대 및 시장 개척을 모색할 전망

국내 주요 게임사의 콘솔 게임 출시 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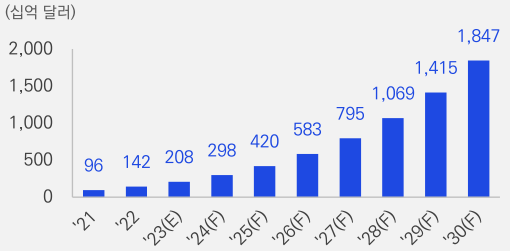
개발사 〈게임명〉	특징
네오위즈 〈P의 거짓〉	• '23년 9월 출시,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 수상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 삼성전자와 이미지 변환 처리 기술 등 기술 협약을 맺어 개발한 작품 • '24년 출시 예정
엔씨소프트 〈배틀 크러쉬〉	• '24년 출시 예정인 엔씨소프트의 첫 닌텐도 스위치 게임으로, PC, 모바일, 닌텐도 스위치에서의 플레이 지원 예정
펄어비스 〈붉은사막〉	• PC, 콘솔 게임으로 개발 중인 대작 게임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게임 생태계를 파고드는 AI(인공지능)

-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래픽 제작, 내러티브 구성, 코딩 작업, 음악 작업 등 게임 생성에 있어서 AI 기술의 활용 점차 증대
-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작업 시간 및 비용 단축이 기대되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이슈, 각국의 AI 규제 강화 트렌드 등으로 AI 기술 도입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지속될 예정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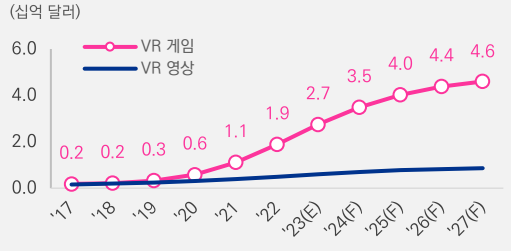


Source: Statista, Next Move Consulting Group,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3 VR(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구동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VR기기를 연이어 발표
  - 바이트댄스는 '22년 하반기 VR 기기 PICO 4 공개
  - 메타는 '23년 4분기 MR(혼합현실) 기기 QUEST 3 및 가벼운 무게의 레이밴 스마트 글래스 출시
-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 비전프로와 함께 VR 게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VR 소프트웨어 B2C 매출 전망



Source: Statist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콘텐츠의 견조한 수요 기반 비즈니스 확장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국내 플랫폼의 사업 차별화 및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대두될 것으로 보임.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및 사업 다각화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내 AI(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며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2024년 영상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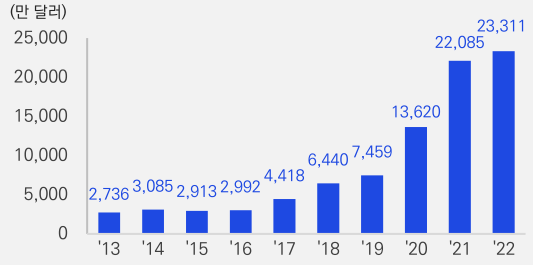
OTT 플랫폼	• OTT 플랫폼 가입자 증가세 둔화, 제작비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수익구조 개편을 위한 움직임 확대 – 광고요금제 신설, 계정 공유 금지 등 조치 – OTT 플랫폼 간 결합하는 번들링 서비스, 통신사 등 타 업종과의 제휴 서비스를 통한 구독자 이탈 방지 노력 등 •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스포츠, 애니메이션, 키즈 콘텐츠 등의 장르 다각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제작사	• 글로벌 시장 내 국내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인기가 지속되며 더욱 다양한 국가로의 판권 판매 등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제작 환경에서 생성형 AI 등 최첨단 기술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23년 미국 헐리우드 작가조합 파업 사태와 같이 기술 도입 관련하여 산업 내 고용 안정성 및 저작권 이슈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4년 음악 시장 전망

- 글로벌 라이브 공연 수요 및 티켓 가격 상승, 앨범 및 MD 수출 증가가 이어지며 산업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미국의 대형 매니지먼트, 제작사와 협업·육성하는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글로벌 성과 등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 등으로 작용할 전망
- 음악 제작과 유통 등 전반에 있어서 AI, VR(가상현실) 등 신기술의 접목이 확대되고, 버추얼 아티스트 등 관련 비즈니스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국내 앨범 수출액



Source: 한국무역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4년 웹툰·웹소설 시장 전망

- 웹툰·웹소설 IP(지식재산권)의 확장 트렌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웹툰·웹소설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웹툰 플랫폼의 미국 상장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애플의 애플북스, 아마존의 플립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웹툰 시장 진출로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 및 IP 수급 경쟁 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웹툰 제작 환경 내 생성형 AI 활용 추세가 점차 확대되며 비용 효율화 및 차별화 경쟁 발생 전망

AI(인공지능) 활용 만화작품 현황

	프로젝트/작품명	참여 주체	특징
'23.3	Shady	Shady Karan	ChatGPT, Stable Diffusion 활용하여 제작
'23.3	I THINK MY KING MIGHT BE A LIL' BITCH	Christopher English	Midjourney, Niji v3-v5 활용하여 제작
'24 (예정)	이현세(만화가) AI 프로젝트	이현세, 재담미디어	45년간 창작한 4,174권 만화 작품을 AI 학습시킨 후 이현세 스타일 창작 예정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산업백서〉,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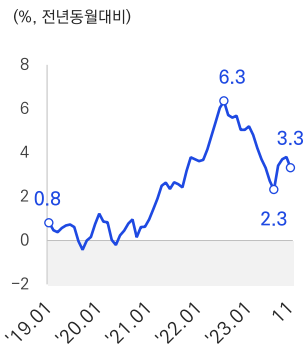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유통 》내수 침체 장기화 속 제한적 성장 전망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단적 소비 패턴이 심화될 전망.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 경쟁력 높은 채널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 온·오프라인 업계 전반적으로 제한적 성장이 예상

2023년 유통산업 현황 및 2024년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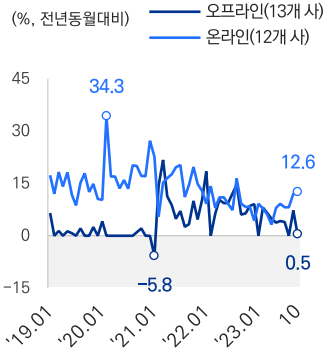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Note: 2023년 11월 수치는 잠정치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Source: 한국은행
Note: 2023년 11월 수치는 잠정치

온·오프라인 매출 증감률 추이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4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 이어질 전망
  - 국내 소비자물가는 '22년 8월을 기점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며 '23년 7월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그러나 '23년 8월부터 3%대로 오르며 '23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조사
- 온·오프라인 채널 간 매출 격차는 '22년 하반기부터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3년 10월 오프라인 매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0.5%로 나타나며 온·오프라인 간 격차가 확대
  - 생활용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점차 이동하고 오프라인 업태별 차별적 실적 흐름이 지속되는 데 따름

01 극단적 소비 성향 심화, 트레이딩 업 & 다운

- 필수품은 저가 구매하는 트레이닝 다운(Trading Down) 현상이 심화되고, 개인의 감성적 만족을 위한 고가품 혹은 희소가치 제품은 상향 구매하는 트레이딩 업(Trading Up) 현상이 동시 관찰될 전망

02 오프라인 업태별 실적 온도차

- 온라인 식품 구매가 보편화되었으나 신선식품은 오프라인 구매 선호 경향이 높은 가운데, 오프라인 업태 중 근거리 구매가 용이하고 식품 비중이 높은 채널의 양호한 실적 기대
  - 편의점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한편 대형마트 대비 접근성 측면에서 이점 보유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존재가치가 점차 부각되며 턴어라운드 기회
- 백화점은 고가품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유통업 내 차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양극화 영향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을 전망
- 면세점은 국가 간 이동 정상화 및 한중 여객 수요기반 확대로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될 가능성. 다만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리오프닝 파급효과 지연 및 보따리상 수요 둔화가 실적 회복폭을 제한할 우려

03 이커머스, 저성장 기조 전환에 따라 소폭 성장 전망

-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간 선택적 소비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되어 옴. 생필품·식료품 중심의 판매 호조세가 당분간 유지되며 '24년 온라인 시장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커머스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 중인 가운데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 사업 확장을 가속화함에 따라 '24년 시장 재편 및 경쟁 구도 변화가 불가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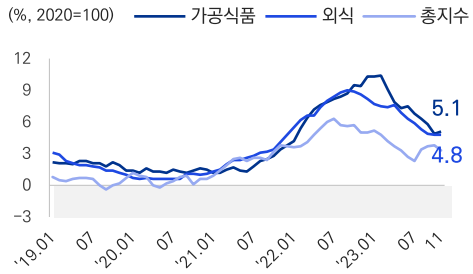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식품·외식 》내식 및 해외 시장의 상대적 강세에 따른 성장 모멘텀

식품·외식 물가 상승 추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합리적 가격 중시 및 가치소비 경향이 양립하며 저가 프리미엄 제품 특성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 가능성. 식품 기업은 2024년 내식 시장 타깃의 고품질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추가 외형 성장을 도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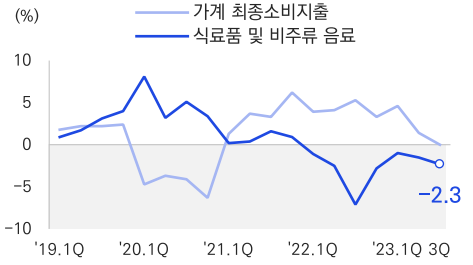
2023 식품·외식산업 현황 및 2024년 전망

식품·외식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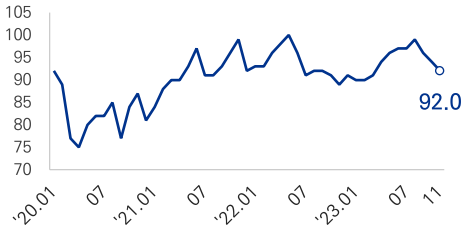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최종소비지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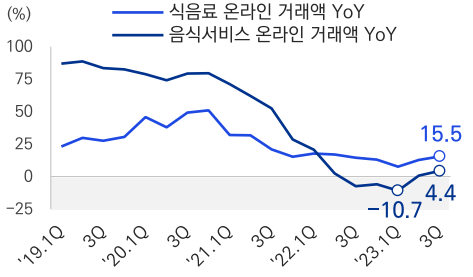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원계열, 실질 기준,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외식비 지출전망CSI



Source: 한국은행
Note: 2023년 11월은 잠정치

식음료·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증감률



Source: 통계청,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식음료

- (소비 시장) 소비자들은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 식비 부담이 늘자 습관적으로 지출하던 외식비 등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간헐적 절약'으로 얇아진 지갑에 대처하는 한편 실속형 제품 구매를 늘릴 전망
  - '23년 11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4.8%로 전체 평균치를 상회
  - 외식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외식 대체재로서의 고품질 가공식품을 비롯해 가격·품질·편의성 측면에서 우위 보유한 제품의 성장성이 부각. HMR(가정간편식), PB(자체 브랜드) 이외에 식품 기업과 유통업체 간 협업을 통한 NPB(공동기획제품), 레스토랑·식품 제조사 협업을 통한 RMR(레스토랑 간편식) 제품이 실속 소비에 따른 수요 흡수 가능성
- (경영 환경) '24년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전망되면서 식음료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 및 수익성 개선 가능성. 아울러 '24년 북미,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 내 가공식품 중심의 우호적 수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 진출 확대 필요

외식

- 외식비 지출전망CSI는 외식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22년 11월 이후 '23년 상반기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23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며 '23년 11월 92로 조사. 외식 물가 상승세에 당분간 외식비 지출 자제 기조가 이어질 우려
- 배달 비용 부담, 외부 활동 증대와 맞물려 '23년 1분기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10.7%로 나타나는 등 '22년에 이어 '23년 수요 둔화세가 지속. 배달앱 이탈 방지 및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딜리버리업계가 다건배달 등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 수요 소폭 회복 예상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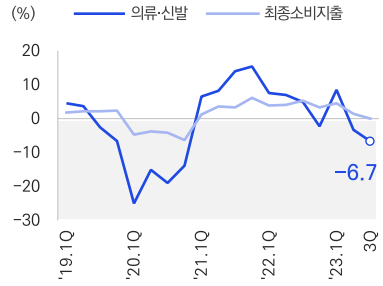
패션 》치솟는 의류·신발 물가에 패션 수요 위축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및 의류·신발 물가 상승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나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의류 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패션 업황은 소폭 개선 기대. 한편 패션 소비 양극화와 취향 파편화가 동시에 관찰되며 하이엔드·저가형 브랜드와 함께 디자인 경쟁력을 보유한 스몰 브랜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

2023년 패션산업 현황 및 2024년 전망

2023년 국내 패션 시장 현황

의류·신발 최종소비지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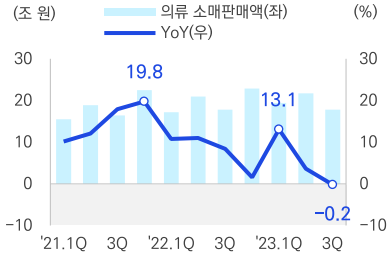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원계열, 실질 기준.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의류·신발 등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재 지출부터 줄이는 양상

- 의류·신발 지출은 '21년 3분기 이후 추세적 감소세가 관찰되며, '23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6.7% 감소

국내 패션·의류 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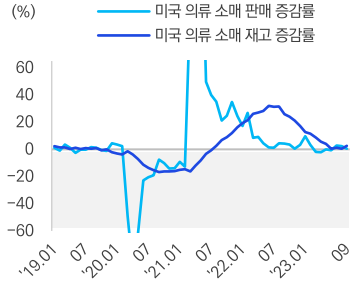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Note: 의복·신발·가방 소매판매액의 합계.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역기저 효과 및 패션 소비 감소 등으로 '23년 하반기 패션·의류 시장 부진 심화

- '23년 1분기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3.1% 확대되며 유의미한 회복세를 시현했으나 '23년 3분기 -0.2%로 역성장
- 소비 양극화 및 취향 파편화가 동시 관찰되며 고가 수입 브랜드와 고품질 SPA 브랜드, 스몰 브랜드 중심의 수요 지속 가능성

미국 의류 소매 판매액·재고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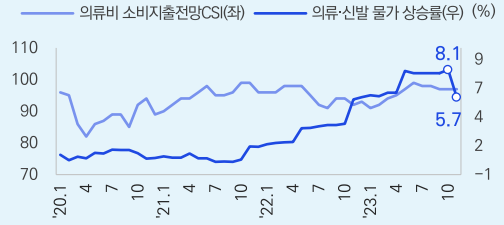
Source: US Census Bureau,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전년동월대비

핵심 수요 국가인 미국의 의류 소매 재고 증감률 하락세가 관찰되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의류 판매 부진이 지속

- 미국 의류 바이어들의 재고 축소 노력 끝에 전방시장 내 재고 과잉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에 재고 감축 기조 지속 전망

2024년 국내 패션 시장 전망

[의류비 지출전망CSI 및 물가 상승률 추이]



Source: 한국은행
Note: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원·부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패션 물가 오름세에 소비자제 경향이 더해지며 '24년 국내 패션 내수 시장 위축 우려

-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21년 10월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3년 10월 8.1%로 나타남. 의류비 지출전망 CSI는 '22년 10월 94에서 '23년 10월 3p 상승한 97을 기록

미국 소매 판매 정체 속 패션 업황 약세 이어지며 신규 오더 반등 어려울 전망이나 바이어별 생산 오더 추이 지속 모니터링 필요

- 미국 의류 소매 재고 하락세가 관찰되며 장기간 지속되어 온 재고 소진 기간에서 벗어나 Re-stocking(재고 확충) 사이클 진입 가능성. 전방시장 업황 회복 지연으로 인해 신규 오더 증가폭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패션OEM 업계에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한편 중저가·스포츠 브랜드 바이어 중심의 오더는 선제적 발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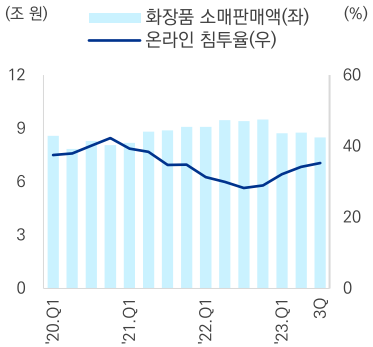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화장품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며 업황 회복세

기존 국내 화장품 시장 성장을 견인해온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선호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중소형 인디 브랜드의 성장성이 확대되는 양상. 아울러 북미·유럽·일본 등 비중국 지역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두각을 보이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황의 빠른 회복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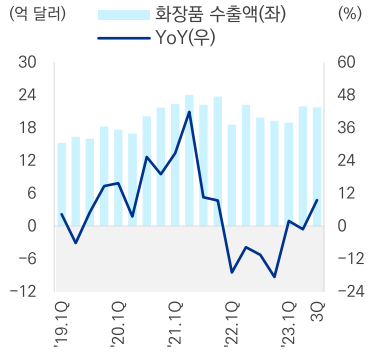
2023년 화장품산업 현황 및 2024년 전망

국내 화장품 판매액 및 온라인 침투율



Source: 통계청
Note: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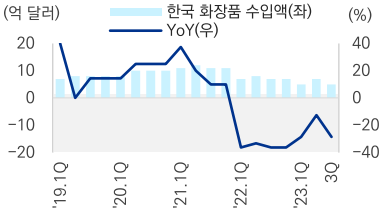
Source: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 및 점유율 추이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점유율 (%)]

'18	'19	'20	'21	'22	'23
23.9	21.3	17.9	18.1	13.5	12.4

[중국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액 추이]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023년 점유율은 3분기까지 누계 기준

'24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소폭 반등 예상

-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3년 3분기 누계 기준 2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감소. 중국 관광객 급감 및 면세점 판매 급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24년 화장품 시장은 기저효과 및 관광객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점진적 회복 전망. 한편 화장품 구매 채널이 온라인 등으로 재편되면서 온라인 화장품 침투율이 상승하는 모습. '23년 3분기 온라인 화장품 침투율은 35.3%로 조사

국내 화장품 수출은 중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국 다변화 추진 영향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

- '22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지속과 자국 제품의 소비를 선호하는 '궈차오' 문화 확산으로 급감하며 중국 수입화장품 시장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22년 13.5% 수준으로 크게 하락. 중국 브랜드가 가격경쟁력 및 향상된 품질로 시장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국산 브랜드의 중국 시장 내 입지 축소는 지속될 전망. 한편 국내 화장품 수출은 '22년 한 해 동안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3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9.6% 확대

중소형 브랜드의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등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

- 수입 화장품 브랜드 및 럭셔리 화장품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중간 가격대 국산 화장품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체 포지셔닝별 실적 편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온라인과 H&B 스토어 등 화장품 구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특정 브랜드·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는 등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시장 환경은 인디 브랜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전망

화장품 ODM업체, 인디 브랜드 성장에 의한 긍정 영향

-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인디 브랜드 중심의 수주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장품 OEM·ODM업체의 수혜 기대감 상승

K-뷰티 주력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전망

- 북미, 일본, 유럽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K-뷰티가 두각을 보임에 따라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서는 기업 확대 전망
  -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 중국 비중은 '23년 3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12%p 줄어든 34%로 조사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완화 노력 성과가 가시화. 반면 對미국 화장품 수출이 확대되며 동기간 미국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p 증대된 14%로 조사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은행 》NIM 하락, 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이익 성장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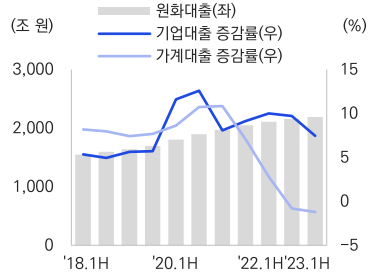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NIM(순이자마진) 하락세 지속 전망. 민간대출 증가세 둔화, 대손비용 증가, 상생금융 참여 등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 증가가 예상. 경기 둔화,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등에 따라 건전성·자본적정성 관리를 비롯하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증대

2023년 은행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

대출 증가세 둔화 전망

- '23년 상반기 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은 2,191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이전 대비 둔화
- 기업대출은 동기간 7.5% 증가했으며, 기업의 대출 수요는 높은 수준이나, 기업 채산성 악화 등으로 증가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
- 가계대출은 894조 원으로 동기간 1.2% 감소. 이자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가계대출 둔화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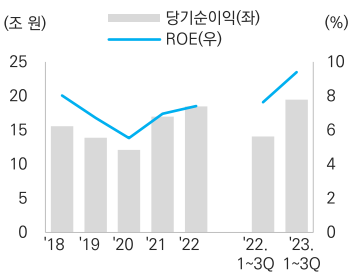
국내 은행 대출 규모 및 증감률 추이



수익성 약화 전망

- '23년 1~3분기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했으나 '23년부터 분기별 당기순이익 등이 둔화하는 양상
- '24년 대출 증가세 둔화 및 NIM 하락 등으로 수익성 약화 전망
-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이자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 정책 기조, 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인한 판매 축소 및 배상 등은 '24년 수익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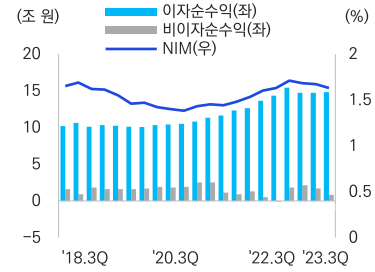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



NIM[1] 하락으로 이익 성장 둔화 전망

- NIM은 '20년 4분기 역대 최저치(1.38%) 기록 후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며 빠르게 상승했으나 '23년 1분기 하락세로 전환.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NIM 하락세 지속 전망
- 기업대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연체율 상승,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NIM의 하방 압력이 증가. '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 NIM의 하락세가 본격화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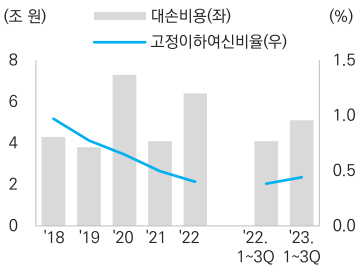
국내 은행 순수익 구조 및 NIM 추이



대손비용 증가와 건전성 관리 필요

- '23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9%로 전년동기대비 0.18%p 상승. 부실채권 잔액은 11.5조 원으로, 특히 기업여신 신규 부실채권이 증가 추세
- 국내 은행 연체율이 상승세인 가운데, 중국 부동산 침체 지속 우려,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4년 대손비용 증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관리 필요

국내 은행 대손비용 및 고정이하여신 비율



Source: 금융감독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NIM(Net Interest Margi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증권 》 제한적 수익 개선 가능하나, 변동성·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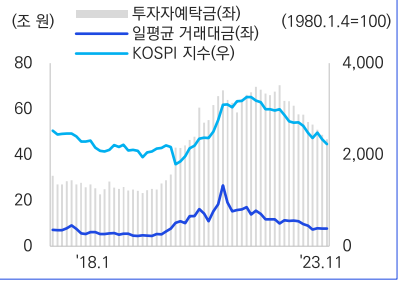
2024년 브로커리지 수익은 소폭 개선될 여지 있으나, 부동산 업황 부진에 따른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IB 부문이 위축되는 등 실적 개선세는 제한적일 전망. 또한 시장 변동성에 따라 채권 관련 금리 연계 이자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등 자기매매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

2023년 증권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 악화

- '23년 글로벌 불확실성 및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 고금리 장기화, 미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주식·채권 등 자산 시장 전반적 약세
- '24년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 등에 따라 증시로 개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시,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개선 가능
- 단, 증권사간 수수료율 경쟁으로 브로커리지 부분 수익 증가는 제한될 소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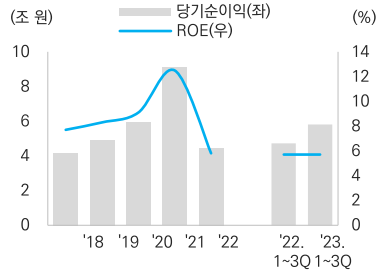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



수익성 제한적 개선, 실적 차별화 예상

- '24년 브로커리지 수익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나, IB 부문 수익 제한과 해외 부동산 금융 관련 손실 등으로 개선폭은 제한적
- '24년 고금리 지속, 부동산 및 경기 둔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상각 등 불안 요인 상존
- 증권사별 자본력 차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실적 격차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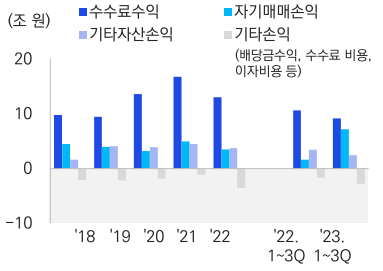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추이



실적 부진 지속 및 수익 변동성 확대

-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주가 하락 여파 등으로 '23년 IB 부문 수수료 및 주식·파생 관련 손익 감소 등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줄어드는 모습
- '24년 부동산 경기 약화 지속은 부동산PF 관련 IB 실적 개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 관련 금리 연계 이자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등 자기매매 실적의 변동성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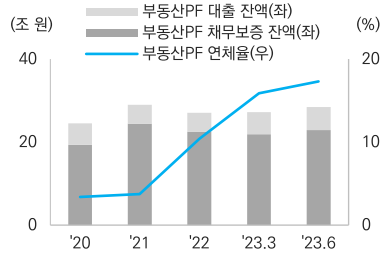
국내 증권사 수익구조 추이



부동산 관련 리스크·건전성 관리 필요

- '23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총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8.4조 원에 달하며, 관련 연체율 또한 17.3%로 가파르게 상승
- 특히 충당금 적립률이 낮은 중소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부실 가능성에 유의
- 영풍제지 미수금 및 홍콩 ELS 사태,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시장· 운용리스크 확대 대비와 건전성 관리 필요

국내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



Source: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카드 》 자금조달 비용 상승·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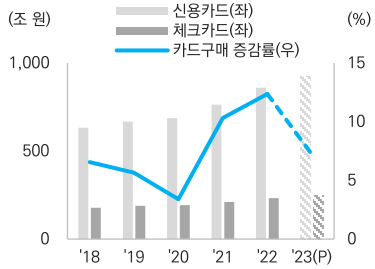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및 국내 카드구매 이용금액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 등으로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 부실차주 및 연체율 등과 관련한 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비금융사의 간편결제업 진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 필요

2023년 신용카드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

민간소비 둔화 가능성 점증

- 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부담 확대, 주택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24년 민간소비 여력 위축 가능. 이에 따라 '24년 국내 카드구매 이용금액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
- 한편, 빅테크·핀테크 등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필두로 지급결제 사업에 진출하고 애플페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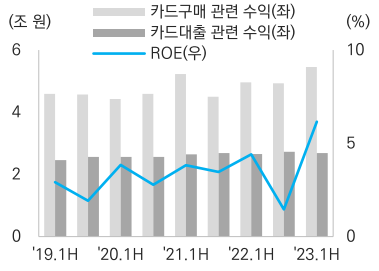
국내 카드구매 이용액 추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예상

- '23년 상반기 국내 신용카드사의 대손준비금 전입 후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364억 원 증가한 2조 원을 기록
- '24년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등은 카드업계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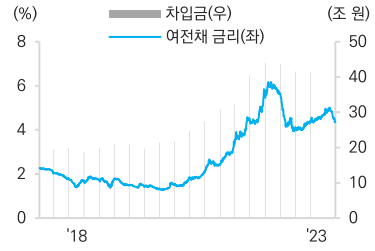
국내 카드사 수익 구조 및 ROE 추이



고금리·은행채와의 경쟁 등 자금조달 환경 악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0, 3년물) 금리는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4%대의 금리를 기록하며 카드사 자금조달에 부담으로 작용
- 여전채 조달비용 부담 지속과 동시에 '23년 10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가 폐지되는 등 여전채 수요 감소 및 금리 상승세 전망. 다만 외화채권 발행 가능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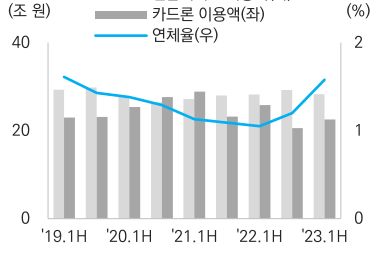
국내 여신전문금융사채권 금리 및 카드사 차입금 규모 추이



카드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필요

- 최근 카드대출과 리볼빙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전업카드사 연체율[1]이 전년동기대비 0.38%p 상승
- 고금리 장기화 기조 및 경기 둔화에 따라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 감소가 전망되며, 이에 연체율 상승 및 부실 위험 관리와 카드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 증대

국내 카드사 카드론 잔액 및 연체율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연체율은 전업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생명보험 》 신규 수요 축소 속 보장성 상품 등 경쟁 심화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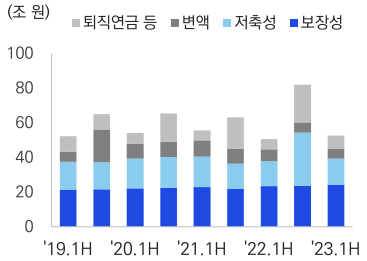
고금리·고물가 지속,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생명보험 수요가 감소하며 제한적으로 성장할 전망. 생계형 보험 해약, 저축성 보험 만기 도래가 맞물리며 유동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가운데, 상생금융 참여 압박이 부담 요소로 작용. 2024년 新회계기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보험사 실적 집계에 정확성이 제고되며 옥석 가리기 전개가 예상

2023년 생명보험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

경쟁 심화·불확실성 등으로 제한적 성장 전망

- '23년 상반기 보장성보험과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판매 감소
- '24년 보험계약마진(CSM)[1] 확보를 위해 보장성 위주의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고금리 기조 유지로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퇴직연금 부문은 제한적 성장 전망. 한편 주식시장 불확실성 해소 시 변액보험 회복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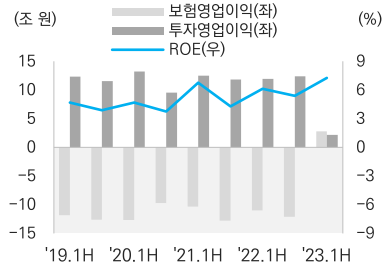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수익성 전년 수준 유지 가능성

- IFRS17 적용으로 '23년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5.0% 늘어난 3.8조 원으로 나타남
- 고금리 종결 가능성 등으로 채권평가이익 등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
- 회사별 CSM 산정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23년 3분기 IFRS17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CSM 조정이 이루어지며 보험영업이익이 축소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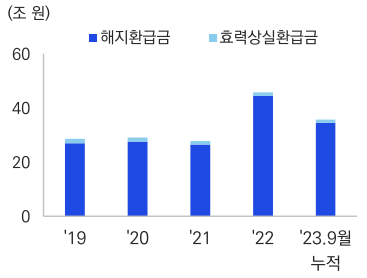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수익성[2] 추이



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 … 유동성 관리 중요

-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및 고금리 상품 전환 수요 등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저축성보험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
- '22년부터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일명 '불황형 해지'로 불리는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이 증가하는 추세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수입보험료 감소, 환급금 증가로 생명보험사의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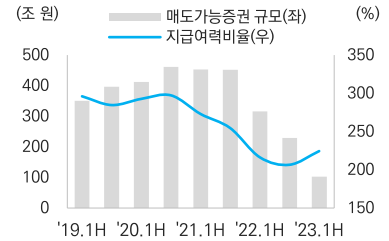
국내 생명보험사 보험 해약 규모 추이



금리·주가 변동성 대비 리스크 관리 필요

- '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K-ICS[3]는 224.3%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금리에 민감한 매도가능증권 규모는 감소세
- '24년 금리 하락 시 관련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금리·주가 변동성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동성 관리 중요
- 제판분리 추세로 GA[4] 등 비전속영업조직을 통한 보험판매 경쟁도가 보다 높아질 전망

국내 생명보험사 매도가능증권[5] 및 지급여력비율[6]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 Note 2): 20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Note 3): K-ICS(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Note 4): GA(General Agency, 법인보험대리점), Note 5): 2023년 상반기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항목, Note 6): 2022년 하반기까지는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이며 2023년 상반기는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손해보험 》 투자손익 변동성 유의, 건전성 관리·성장 동력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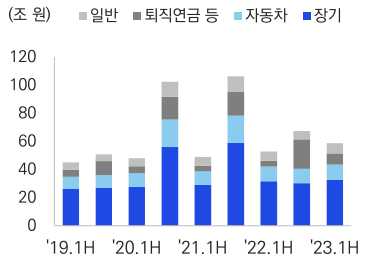
IFRS17이 본격 시행되며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해온 국내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 상생금융 참여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으로 수익 성장에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대출채권 연체 등 건전성 관리가 필요.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제고와 펫보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규 활로 모색이 중요

2023년 손해보험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

완만한 원수보험료 성장 전망

- '23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이는 퇴직연금과 일반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기인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 및 비대면 채널 비중 확대와 더불어 보험료 인하 압박 등으로 일부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일반손해보험은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책임보험 시장 확대 등으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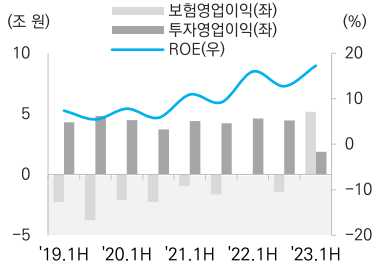
국내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추이



수익성 소폭 개선 전망

- 회계제도 변경,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따라 '23년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5.6% 증가한 5.3조 원을 기록
- '24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력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손해율 하락, 실손보험료 인상 등은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국내 손해보험사 수익성[1] 추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실손보험료 조정 가능성

- '23년 상반기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 동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0%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했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점증
- 백내장 수술 관련 심사 기준 강화로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여 관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국내 손해보험사 손해율 및 사업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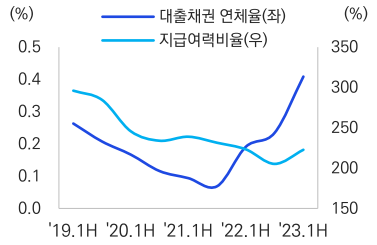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19	84.9	22.2	107.1
'20	83.4	21.2	104.6
'21	82.1	20.5	102.6
'22	80.8	20.5	101.3
'22.1H	79.7	19.6	99.3
'23.1H	80.3	21.6	101.9

건전성 관리와 새로운 성장 활로 마련 중요

- 대출채권 연체금액이 늘어나며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유의. K-ICS는 양호한 수준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부동산PF 대출 등 모니터링 필요
- 포화상태에 다다른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한계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연계 비즈니스 준비 예상

국내 손해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및 지급여력비율[2] 추이



Source: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3년 상반기부터 IFRS17 적용, Note 2): 2022년 하반기까지는 RBC(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이며, 2023년 상반기는 경과조치 적용 後 지급여력비율(K-ICS)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국내 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제한적인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AI 확산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 이에 국내 기업은 거시 환경 흐름과 더불어 산업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상하는 세부 섹터에 선제적 대응, 전략적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흥 시장·채널 적극 발굴 등 기업별 맞춤 전략 필요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반도체	• '24년 반도체 시장은 '23년 대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23년의 하락폭을 상당 부문 만회할 것으로 전망.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주요 반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의 확대에 따른 AI 반도체 시장 확대가 전망됨	•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PIM(Processing In Memory) 등의 AI용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시장 확대 노력 • 국내 팹리스 AI 반도체 스타트업, 글로벌 테크 기업 등 AI 반도체 시장의 신흥 플레이어의 역할과 연계 사업 모델 확보에 주목 필요
휴대폰	• '24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대비 3.8%의 성장세(출하량 기준)가 전망됨. '23년 3분기부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로 전환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AI 스마트폰의 등장과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24년 주요 시장 변수로 주목	•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통한 AI 활용 전략 및 연계 사업 모델의 확보 검토 • 중저가 폴더블폰 유입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폴더블폰 경쟁력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조선	• 호황기 대량의 선박 발주로 인해 '24년 글로벌 발주량은 감소 전망. 하지만 국내 조선사의 높은 수주잔량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의 증가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전망 • 특히 경쟁국(중국·일본 등) 대비 친환경·고부가 선박 분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한 바, '24년도 친환경·고부가 분야의 수주 증가 기대	•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 선별 수주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모색 • 암모니아연료추진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LCO2 Carrier) 등 신규 선종 개발 투자 확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정유·화학	• 선진국 내 주요 정제설비 일부 폐쇄 및 글로벌 신규 증설 계획 감소로 수요 대비 공급량이 타이트할 전망 • 에틸렌 등 순증설 규모 하락에 따른 공급 감축으로 전반적인 업황 회복 기대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비정유부문의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필요 • 중국 시장 고려 시 '23년 대비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도 등 신규 시장 개척 필요
에너지·유틸리티	• 국내 에너지 수요는 '24년 경제 회복과 함께 전년대비 2.6% 증가 예상 • 가스의 발전 부문 수요 증가와 신재생 및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는 한편, 석탄은 송전 선로 부족과 발전 감축정책으로 전년대비 수요 감소 전망	•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 발전 비중의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이 시급 •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가스 수입국 다각화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필요
제약·바이오	•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특허절벽 등의 영향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단기적인 성장은 건전 •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만료가 이어지며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해외 시장 공략 활발 예상	• 항암제 등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및 관련 글로벌 빅파마와 M&A 전략 고려 •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퍼스트 무버, 제형 차별화 등을 통한 시장 확대 전략 수립 필요
항공	• '24년 항공여객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항공여객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항공화물 전자상거래(화장품, 전자제품 등)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 전환.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부정기선 확대,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노선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증대해 수익 극대화 추진 • 전자상거래 수요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요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긍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플랫폼은 사업 차별화 및 수익구조 개선 노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국내 콘텐츠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수요 기반의 해외 진출 및 사업 다각화 트렌드가 지속	• 글로벌 다양한 지역 로컬 콘텐츠 발굴, 차별화된 니치 콘텐츠 큐레이션 등 콘텐츠 다양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모색 •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함께 급격한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노력 필요
식품·외식	• 식품·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는 필수재인 식품대비 외식 중심으로 소비를 줄여 나갈 것으로 보임 • 외식 및 배달 수요 위축 경향으로 내식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	• 외식 대체품으로 인식되는 간편식을 중심으로 가격·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B2C뿐만 아니라 B2B 간편식·밀키트 사업을 추진하며 부가 수익 창출 기회 모색 필요 • 성장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K-푸드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주력
화장품	• 수요 파편화로 화장품 성장축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인디 브랜드로 점차 이전되며, 중저가 브랜드가 시장 회복을 견인할 전망 • 글로벌 시장 내 한국 중저가 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며 수출 회복세 가속도 붙어 OEM·ODM업체 수혜 예상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저가 인디 브랜드에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연계하여 국내외 시장 공략 필요. 아울러 플랫폼·H&B 스토어 등 채널 특성별 적합한 판매 전략으로 수요 개선 도모 • 화장품 ODM 기업은 국내 기업의 높은 생산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요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료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책임보험 시장 확대 등으로 장기·일반손해보험 성장 예상 •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 여지가 있으며, 투자손익 변동성 등에 따라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대출채권 연체율과 해외 부동산 투자, 부동산PF 등을 모니터링하며 건전성 관리 필요 •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확장 전략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연계 비즈니스 발굴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부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디스플레이	• '23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시장 규모(금액 기준)가 축소된 반면, '24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며 소폭 확대 전망 •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은 '20년 저점 이후 수출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이 '21년부터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후 한국은 2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차량용 디스플레이, XR(확장현실) 기기 등 신산업 전략에 주안점을 둬야 함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으로 발생했던 차량 대기수요는 '23년 대부분 해소 완료되며 '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는 제한적 • 중국산 전기 자동차는 원가 경쟁력으로, 테슬라는 스마트카의 편의성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시장별 특화 전략 필요. 미국은 '24년 하반기에 전기차 공장 완공 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할 전략 필요, 중국은 저조한 시장점유율 제고 방안 필요 •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내연기관차를 압도할 것이므로, 전기차 시장 내 확고한 포지셔닝 방향 및 이행 방안 수립
철강	•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철강 수요의 부진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방산업(특히 건설, 가전, 중장비, 기계 등)의 부진으로 '24년 국내 철강 산업은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	• 전방산업 회복 지연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동반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철강재 개발에 집중할 필요 • EU CBAM 전환기('23.10~'25.12)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전략이 필요
게임	• 둔화된 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 다변화 등으로 국내외 이용자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 • 게임 생태계를 파고드는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과 도입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기존 팬덤을 보유한 IP(지식재산권)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을 넘나드는 성공적인 크로스 플레이 구축 전략 수립 • 신규 기술의 밸류체인별 주요 플레이어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일부 부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유통	• 인플레이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비심리의 급격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매력 또한 지속 약화될 가능성 • 유통업태는 전반적으로 제한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근거리 구매가 용이하고 식품 비중 높은 일부 채널은 양호한 실적 기대	• 구매 패턴 변화에 따라 채널별·품목별 특화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리포지셔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재도약 • 온라인은 사업 간 연계 시너지 창출 가능한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수익성 높은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정비, 통합적 락인(Lock-in) 체제를 구축하며 지배력 강화 필요
패션	• 의류 물가 상승과 함께 패션 내수 시장 부진이 관찰되나 '24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수요 회복세 예상. 한편 소비 양극화와 함께 취향 파편화 트렌드 확산 전망 • 핵심 수요국 미국 내 재고 과잉 이슈는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나 전방시장 내 수요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신규 오더 확대는 어려울 것	• 패션 장르·가격대를 넘어선 취향 파편화가 관찰. 성장성 높은 브랜드 중심의 리빌딩(Rebuilding) 및 수입 브랜드, 스몰 브랜드, 아웃도어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지속하며 수익구조 강화 필요 • 패션OEM업계는 첨단 기술 기반 자동화 공정 및 스마트 공장 구축 등으로 생산 물량 확대 사이클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규모 오더 물량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함
은행	•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상생금융 참여, ELS 불완전판매 이슈 및 보상 책임 등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 긴축정책 장기화, 연체율 상승 등으로 NIM(순이자마진) 하방 압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24년 금리 인하 시 NIM 하락 본격화 예상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며 책무구조도 및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상생금융 등에도 대응해야 함 •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 비금융 사업 다각화 및 확장, 경쟁력 확보와 금융 소비자 접점 확대·서비스 고도화 위한 전략 재고민
생명보험	• 고금리·고물가 기조, 경기 회복 둔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상생금융 참여 등으로 제한적 성장 전망 • CSM(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 활동이 예상되며 주식시장 불확실성 감소 시 변액보험 회복 가능성 존재	• 금리 및 주가 변동성 지속과 수입보험료 감소 및 환급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모니터링 필요 • GA(법인보험대리점)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한 균형적 채널 운영 방안 모색, 간병·요양 등 고령화 추세에 맞는 상품 등 신규 비즈니스 발굴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2024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부정적』 전망 산업

	2024 전망	대응 전략
해운	• 세계 경기 둔화, 고금리 기조, OPEC+ 감산합의 등 요인으로 전반적인 해운 물동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서유럽의 가스 공급망이 급격히 변하고 선박연료용 LNG 수요가 증가하는 바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유지될 전망	• 자율운항선박과 E-플랫폼 등을 통한 운영 비용 효율화 및 서비스 범위 확대, 종합물류 등 공급망 기능 연계를 통한 이익 격차 확보 •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설	•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해외 건설은 유가 상승에 힘입은 중동 산유국의 투자가 활발해져 '24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증가 기대	•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 능력 강화 필요 • 플랜트, 인프라 등 유관 분야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IT·스마트시티 등 중동의 新성장산업 관련 영역 진출 모색
증권	• 브로커리지 수익 소폭 개선 가능하나, IB 및 자기매매업무 관련 수익성 창출 제한 • 자기자본 규모별 업무 범위에 따라 실적 격차 확대 가능, 부동산 PF 외 IB 관련 사업 진출, 채권 관련 운용역량 및 시장 변동성 대응 필요	• 부동산·금융시장 불확실성 관련 건전성과 변동성 관리 역량 및 신규 IB업무 사업 전략 마련 필요 • 종합금융투자사 전환, 토큰증권(STO) 기반 신규 상품 개발, 개인투자자 유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 고민
카드	•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이 점증하며 카드구매 이용 규모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 •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충당금 증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지연 등은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자금조달 다변화를 비롯하여, 취약차주 상환 능력 감소에 따른 연체율 상승, 부실 위험 관리와 함께 유동성,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이 중요 • 해외 진출 확대, 데이터 사업 고도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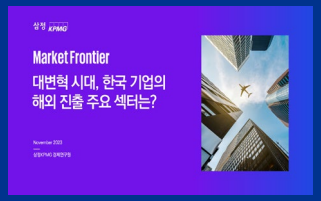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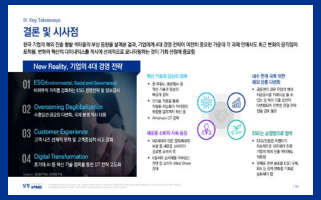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발간

대변혁 시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주요 섹터는?





Contents

I. 대변혁 시대, 경영환경 변화

II. 5대 산업별 해외 진출 주요 섹터

- 금융: 뱅킹, 보험, 지급결제
- 소비재: 편의점, 간편식, 베이커리, 캐주얼 패션
- Tech: 고성능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웹툰 플랫폼
- 인프라·헬스케어: 친환경 선박, 의료영상 AI, 디지털 폐기물 관리
- 제조: 배터리 양극재, 급속 충전기, 바이오 시밀러

III. Key takeaways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2023년 12월 발간

공급망의 미래
Future of Supply Chain





Contents

KPMG는 전 세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공급망 내 주요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 향후 1~2년 내 주목해야 할 트렌드
  - 지속가능한 공급망 설계
  - 자동화 투자
  - 공급망 노동력 변화
- 향후 3~5년 내 부각될 3가지 트렌드
  -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 화폐 등장
  - 주요 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술혁신
  - 메타버스를 공급망 운영 도구로 활용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삼정 KPMG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 KPMG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게임·엔터미디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